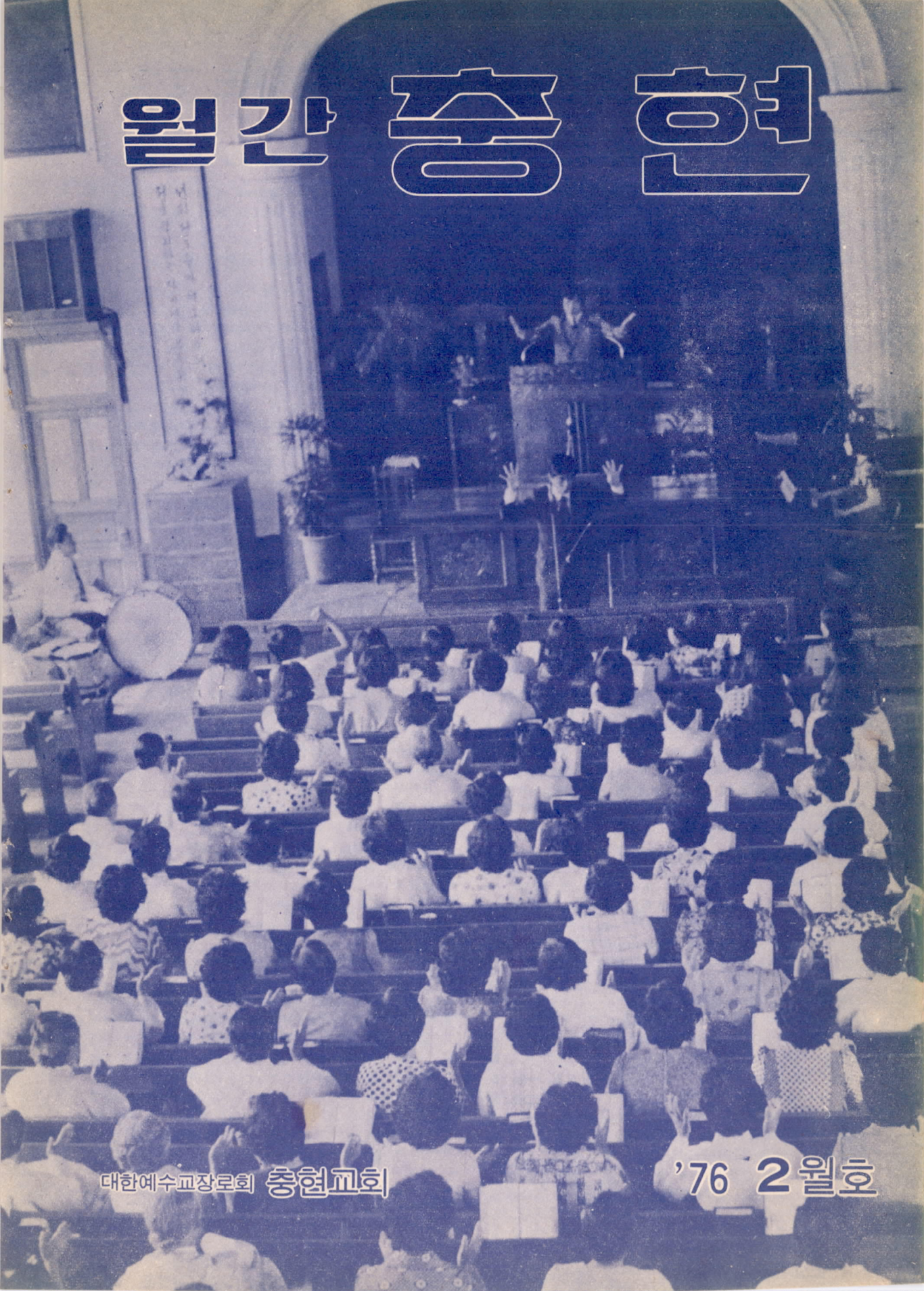


월간 총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76 2월호

복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

□ 잠언 11:16-19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에게에는 은혜를 나누어 주고 후손들에게는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복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섯가지로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습니다.

어떤 여성도들이 복을 받습니까?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있는 여성도가 복을 받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 중에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여성도가 최고의 여성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읍니다. 얼굴이 예쁘고 마음이 나쁜 것 보다는 마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더 나아가 지혜로 죄우를 분별할 줄 알면서 회생하여 덕을 세우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성도들을 하나님은 최고의 여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덕을 세우는 여성도야말로 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도가 세워야 할 이러한 덕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뉘사람을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위로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조심함으로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만 되지 않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화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이러한 덕을 세우는 일보다는 사치에 눈이 어두워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다면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난 여자라도 그 여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전혀 쓸모가 없는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 중현교회 여성도들은 주 안에서 뉘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돌보며 선한 일에 탐과 눈물을 바치므로 모두가 가정과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여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부지런함은 행복의 어머니로 황금을 만드는 기계요 참 인격자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당당해도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금을 통해 게으른 사람이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지식의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영육이 부자가 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지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란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날마다 자기의 책임을 다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놀며 잘 살아야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저주스런 생각입니다. 놀고 먹으면 자기 자신은 편한지 몰라도 자손에게는 멸망을 안겨주는 악독한 짓이 되는 것입니다.

중현교회의 성도들이여,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하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갈 사람 중 첫째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의 할 일을 안할 뿐만 아니라 일거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게으름피우다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지런하며 믿음의 부자, 지식의 부자, 물질의 부자가 됩시다.

인자한 자는 그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인자란 말은 어질다는 말이고 또 자비스럽다는 말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뉘사람을 잘 공경하기에 분한 것을 참고 아랫사람을 키워주고 죄인을 용서하기에 역술한 것을 참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익은 커녕 손해만 보다가 굶어 죽거나 바보취급만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이익을 본다고 하였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영혼이 이롭게 된다고 하였읍니다. 불길에는 손해가 나고 남들 보기에는 바보같은데 그 영혼은 성령님이 임하시서 마음의 천국이 이뤄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뤄진 사람은 가정과 직장의 천국이 이뤄지고 나중에는 물질의 이도 남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으로 뉘사람을 패역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을 멸시하고 착취한다면 재물은 얻을지 몰라도 영혼은 손해나고 마음에는 지옥불이 타올라 가정도 직장도 끝내는 지옥불에 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합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위에 던지라/전 11:1」는 말씀이 있습니다. 흙을 잘 일군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위에 씨를 뿌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되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할 뿐이지 이해관계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의를 뿌리면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을 주시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인정에 끌리어 편싸움 하지 말고 공의에 서서 의를 뿌리고 욕심에 끌리어 때문지 말고 청렴한 자리에서 의를 뿌리며 불의한 세력에 앞잡이노릇하지 않고 민족양심으로 의를 뿌릴 때 하나님은 영혼의 상급뿐만 아니라 육신의 상급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의를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목에는 사망이 없나니라." 의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만이 육신과 영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있게 왔으나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나니 부르시면 누가 먼저 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천년이나 살 것 같아서 믿음의 절개를 팔겠읍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천국가서 살면 되지 않읍니까? 천국을 믿읍니까? 믿는다면 땅 위에서 몇날이나 더 살겠다고 믿음을 팔겠읍니까? 값 없이 악마에게 이용당하며 구차하게 생명이 연장되는 것보다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합시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 주(註): 지면관계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이 「월간 증현」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

월간 증현

2월호 행사

- 1/정기 제직회·남전도회 임원회·권사회임원회
- 8/남전도회월례회 및 헌신예배
권사회 월례회·여전도회 임원회
특별 집회 실시
- 15/여전도회월례회·제정위원회·교육위원회
- 22/구역권찰회·여전도회 헌신예배
- 23-27/대학부 제자 훈련
- 26-28/중·고등부 동기수양회
- 29/해의복음선교회 월례회 및 헌신예배
주요 각부 교사월례회
정기당회

2월호 차례

- <설교> 복을 받으면서 사는 방법/김창인 목사 ...2
- <해의선교> 정글선교-우리에게 부여된 특권
/서만수 선교사.....4
- 한국교회와 선교/이연호 전도사.....11
- <평신도를 위한 신학>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②/신성종 목사 ...7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론)/이정웅8
- <성경연구>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위로/윤영탁 전도사.....10
- <구역장노우트> 구역업무처리요령/백성룡목사...15
- <기관소재> 주일학교:청년부6
- <찬송가해설> 죄짐 달은 우리 구주.....9
- <컬럼> 교향행 열차/오태웅.....9
- <책소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12
- <믿음의 어머니> 고 최경한 권사님을 생각하며...13
- <교회뉴우스>16
- <기자석·편집후기>.....18
- <화보>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19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970)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권두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자

—교회 물자절약 캠페인에 붙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딤후 4:10

위의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지기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忠誠)이다(고전4:2).

그러면 우리가 맡은 각양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맡은 직분과 신분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동사자(co-worker)가 된 것이다. 두번째는 우리의 시간·재능·물질 등 우리가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 이란 사실이다.

사실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바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소모품 등은 성도의 헌금으로 산 하나님의 물건들이다. 다시 말하면 성물(聖物)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는 자기 개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성직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청지기의 태도로 해야 할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 언제부터인지 “내 것이 아니니 아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얌전한 정신이 모든 생활 속에 배어 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개인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는 물론이고 더구나 성물인 교회의 종이 한장 기를 한 방울, 전기의 무절제한 사용, 여기 저기 아무렇게나 던져진 점들—이런 태도를 버리고 청지기정신으로 사용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버려진 수많은 종이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생활화되지 못한 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금번에 「월간 증현」이 중심이 되어 벌이는 교회 물자절약 캠페인의 참 뜻을 이해하고 적극 협력해 주기를 온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주관>

정글선교-우리에게 부여된 특권

- ◇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정글선교에 몰
- ◇ 두하며 수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 ◇ 가지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주
- ◇ 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
- ◇ 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
- ◇ 고 놀려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정글
- ◇ 에 취했다고 놀려도 상관 할 바 없습니
- ◇ 다. 정글선교는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입
- ◇ 니다.



◇ 서만수 선교사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정글의 심령들을 위하여 수고와 정성과 힘을 기우리시는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의 성원으로 이번 제 6차 정글순회도 은혜 중에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찬송 드리으며 정글 선교의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립니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과 그 사랑의 줄로 맺어진 정글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의 목표는 깊은 정글에 갇혀있는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행할 때마다 느껴지는 무저음이 어찌면 우리를 더욱 이 일에 보람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글은 외부에서 타진되고 교제에 의하여 분석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입니다 이번 우리의 순회일행은 인도네시아 종교성 각 지청의 후원과 협력을 받

면서 진행했는데 자바나, 술라웨시나, 보르네오, 순회 테브다는 또 다른 면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스마트라 바락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회교 세력이 팽만되어 있었으며, 이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며 주님의 교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북부스마트라 외 회교세력

일반적으로 교회당이 아닌 개인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프마부미”교회의 경우 교회는 철거되었고 교역자가 주둔지역 군지휘관에게 구타를 당하며, 갓난 아기를 비롯한 온 가족이 몰한모금도 마시지 못한채 폭력하에서 고초를 당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성도들의 고난을 값없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극심한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 중에 한사람은 사건후 1주만에 그 부인이 병들게 되었고, 그후 1주만에 아들이 죽었으며, 1주 후에는 또 다른 아이가 병들어 마침내 그는 교회에 찾아와 통회하며 지금은 주님의 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글은 울창한 수림 때문에 어두운 것만이 아닙니다. 맹수와 독충 때문에 무서운 것만도 아닙니다. 정글은 아직도 모든 문명의 이기로부터 동떨어져 있어서 더욱 어둡습니다. 정글인들은 지금도 마술에 사로잡혀있어서 두려워합니다. 이런 순회 중에 특히 접근하기를 기도하였던 정글인은 “꾸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와의 접근을 꺼리며, 정글 속에만 고립되어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년전 정부가 이들에게 집을 지어 주었으나 한 가구도 집에 들지 않아 집은 그대로 썩어서 수목에 뒤덮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철차를 빌려 이들을 찾아 들어갈 때에 안내자와 운전수, 조수들은 누누이 부탁하기를 그들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어서는 안되고, 특히 음로나 음식은 절대로 입에 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외부인을 자기들의 세계의 집입자로 간주하므로 이들에게 독을 먹이든지 마술을 걸어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것 보는 것이 자랑거리며 취미라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고립-꾸부족

베르트 람롱 지부장은 몸집도 꽤 큰편이고, 성격도 역센 편인데도 자동차 발동이 꺼지든지, 바퀴에 찢긴

■... 정글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며 그곳에서 빛없이 사라지는 그 영혼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글은 목사도, 전도사도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천막을 지워가지고 강통을 싸 들고 다니는 선교사들에게는 더 없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웃도 입혀주고 말썽도 채워 주어서 안과 밖을 주님의 것으로 모두 장식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갈이 차체에 맞아서 소리날 때마다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찬송을 하면서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약도, 마술도 성령에 역사하심과 우리 선교의 동지들의 기도에 녹아지고 말것입니다"라고 힘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정글의 낮은 다른 곳보다 반시 간이나 짧습니다. 오후 5시경이 되어 오니 정글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확박거리며 앞을 가로막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였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꾸부"족이었습니다. 참으로 당황하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전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의 표시로서 내어미는 손마다 동전 한푼씩을 주었고, 운전수는 담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도 호감이 갔는지, 나무뿌리, 장신구 등을 주며 가져가라고 했으나,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정글속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때 15세 정도의 벌거숭이가 우리를 방해하므로, 연장자가(추장인듯)달렸으나 그냥 지근거리더니 추장 옆에 있던 경정이 눈을 부라리며 달아나는 아이를 잡아 주먹으로 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손을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카메라가 옆에 있었으나 사진 찍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운전수, 안내자 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다시 접근하기로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서 그들의 말을 한마디라도 아는 사람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아는 사람도 없고 접근하기를 두려워하므로 다음날 다른 차를 빌려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아직 낮이어서인지 한사람도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차가 멀리 달리고 있을때 나무에서 망보던 벌거숭이 아이를 한두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을뿐이었습니다. 화전민들에게 처럼 우리 의류를 나누어 주지 못한 것이 참으로 후회되었습니다.

길이 거칠 때마다 차는 계속 발동이 꺼지고, 드디어 우리는 정글속에서 한밤을 갈리게 되었습니다. 비위 좋은 원숭이 배가 접근하는가 하면 3m나 되는 뱀이 유유히 길을 가르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일행중에는 정글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글속에서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 않느냐고 했지만, 사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글속에서 만나는 인간은 무섭지만 인간들이 사는 동리의 불빛만은 한없이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진흙탕길, 들쭉 길을 몇시간을 헤매는 데도 정글의

밤은 무섭기만 하더니 저 멀리 눈 앞에 수십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 들림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이는 그 불빛은 아무리 달려가도 초조한 마음 때문에 가까워질 줄 몰랐습니다. 점점 접근하여 보니 인가의 불빛이 아니고, 정글을 돌아다니는 불소베의 눈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과 기대에 쓴 웃음을 머금고 자책하였습니다. "풍랑을 무서워 말고, 주님의 부름만을 수행하라"사막의 나그네에게 실기루가 나타나서 희망을 주기도 하고, 또 그곳에 홀려서 찾아다니다 처져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인가의 불빛으로 기대했던 우리에게 불소베의 눈으로 확인되어서 허락이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정글은 지금 미개인들의 마술과 강탈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수억년을 잊히고 간헐 침침한 정글, 두번 다시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는 곳입니다. 정글을 벗어나 숲속을 지날때는 자기집 대문 안에 들어선 기분이고, 계곡을 지날 때는 안방에 들어 온 정도로 마음이 놓일만큼 정글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교사는 정글에 취한 사람모양, 더 깊은 정글, 남들이 꺼리는 오지인들을 찾으며, 정글에 있을 때만큼 담대하며 보람을 느낄 때가 없으니 정녕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취향까지도 개조시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겁장이 약배에다 내성적인 인간이 어찌 그렇게도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정글 선교의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에는 세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는 저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한 자연인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될 때마다 저는 저평이의 나약함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와 정성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지금의 우리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먹으로 눈물을 흘리고 새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둘째는 정글의 형편이 너무나 박해서였습니다. 정글속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며, 그 곳에서 빛없이 사라지는 그 영혼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글은 목사도, 전도사도 견디기 어려운 곳입니다.

천막을 지워가지고 강통을 싸들고 다니는 선교사들에게는 더 없이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웃도 입혀주고 말썽도 채워주어서 안과 밖을 주님의 것으로 모두 장식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너무나 크고 생각할수록 황송해서였습니다.

좁은 땅, 식구 많은 곳에 태어나서 그 중에서 끝지락

우리조는 우리가

== 11개조의 총150여명이 매주 모여 ==



◇ 정글선교에 동행한 인도네시아의 어느 목사와 함께.

거리다가 세상을 마칠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처럼 광활한 정글을 단저 주셨으니, 이것이 적은 은혜입니까? 정글의 기도는 미사리구의 수석이 없어도 응답하며 효과 백발백중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무엇때문에 이 정글선교에 몰두하러, 수없는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을 가지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했다고 놀려댔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정글에 취했다고 놀려도 상관 할바 없습니다. 정글선교는 우리에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신구조류의 혼합집결인 수도 자카르타를 훌훌히 떠나 정글에 뛰어드는 그 배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부름과 이를 뒷바침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든지, 덤든지 종각 다락방에서 드리는 동지들의 기도, 시모님도 물대 부엌에서 드리는 며느리의 간절한 기도, 여력을 모두어 드리는 할머니의 정성스런 기도, 친진한 주일학생들의 기도, 밤10시마다 무릎 꿇는 동창들의 기도, 때와 장소를 무분하고 정글선교에 소명을 받은 우리 동지들의 기도와 숨겨드리는 사랑하는 가정의 정성이 원동력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정글선교의 동지 여러분,

우리 다같이 정글선교의 행진곡을 힘차게 부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도다.....

할렐루야/자카르타

정글 속에서, 여러분의 동역자

선교사 서 만 수 올림

청년부는 젊은 일꾼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자”는 표어를 가지고 지도해 오시던 정상우 목사님 후임으로 고등부에서 수고하시던 정관일목사님과 부장에는 윤용규장로님 부감에는 김진호 장로님 안윤진권사님을 모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내 이웃에게”라는 청년부 표어를 가지고 출향한 것이다.

청년부가 하는 일은 일하기 전 먼저 성령의 감동을 입기 위해 목사님 성경강해에 귀를 기울이고 강사님을 모셔다가 지적인 충신을 가져다 놓는, 병원, 노방전도를 하며 하기수양회 산상기도회 친야기도회를 통해 교제와 말씀, 성령충만을 받으며 특히 각부 주일학교에서 어린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약 70명이 주교교사).

청년부 조직은 20명의 임원과 22명의 조장이 있으며 부서로서는 전도부 교육부 음악부·회우부·봉사부·체육부로 구성되어 있고 신년들어 와서 개편된 11개의 조는 종래와는 달리 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한 것은 대학부 졸업자들로써 구성된 7조와 부부조인 9조가 다시 부활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각조는 하나의 조그만 청년부가 되어 즉 조장을 중심으로 자체 내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며 별도로 성경 공부나 기도회 또는 친목을 가지며 “우리조는 우리가”라는 모토 아래 각조와 나아가 청년부의 발전과 활동을 위해 피차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부집회는 매주 10시 50분 청년부실(구대학부실)에서 가지며 회원은 18세에서 35세까지의 우리 교회의 청년은 가입할 수 있다.

초창기에 30명에서 출발한 청년부는 현재 150명의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젊은 때가 가고 끈고한 날이 오기 전 창조주를 기억하여 “오직 예수”라는 구호를 내 걸고 오늘도 선한 청지기로써 많은 일에 충실히 봉사하며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목자가 되기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는 청년부에 참여하시기를.....

마지막으로 감사할 드릴 것은 오랫동안 청년부의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었던 집회장소와 전담교역자 문제가 새해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다.

(글/한형식 부회장)

성경학원 학생모집

○자 격/세례교인(보통반) ○마 감/2월 15일
○개 강/2월 23일 ○접수처/성경학원 사무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해

신 성 중 목사
 <부목사·대학부 지도>

3. 이적과 과학과의 관계

부른너는 이적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의 문제는 인과관계나 이적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나 인간의 자유냐를 선택하는 것”이란단다.

여기서 과학이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 과학을 흔히 말하며 자연과학이라고 할 때 특히 염두에 두는 것은 물리(物理)이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영원한 법칙” “불변의 법칙”을 생각한다. 그러나 과학에서는 영원한 법칙이나 불변의 법칙이란 없고 언제나 변하는 법칙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과학엔 결론이 없고 언제나 끝없는 진행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프톨레미(Ptolemy)의 법칙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하여 수정되고 이것은 다시 뉴턴에 의하여 수정되어 오랫동안 “영원한 법칙”이 발견된 것으로 믿어졌으나 그것은 다시 아인슈타인에 의하여 무너짐으로써 과학엔 결코 결론이란 없고 끝없는 과정이 있을 뿐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세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1) 고대시대

BC600년 이후 그러니까 탈레스(Thales) 이후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알키메데스 그리고 프톨레미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법칙”이라고 부른 법칙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법칙이란 아직 체계적인 것이 못되어 이적 신앙에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근거한 스톤라 철학자들은 이적과 과학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해결했다. 즉 “하나님은 자연속에서 두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는 자연적 즉 정상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즉 비정상적 방법이다” 후에 이 전제는 메탕론이나 무터에게 영향을 주어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자 로마 교황청은 1616년에 이를 부정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케플러의 “자연은 수학적이다”란 법칙이 나오으로써 고대 시대의 막을 고하게 했다.

(2) 고전적 시대

고전적 시대의 막을 열게 한 것은 1637년 이삭 뉴턴의 만유인력의 발견과 그의 법칙(principia)들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우주관이 등장함으로써 비롯된다. 물론 뉴턴의 법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물리는 순전히 수학적 그리고 기계적 설명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자연의 “영원한 법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주를 폐쇄적인 면에서 보게 됨으로써 자연의 법칙 밖에서의 이적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3) 현대시대

뉴턴의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00년 막스 플

랑크의 양의 이론(Quantum Theory)이 백림에서 강연되면서였다. 더우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이 발견되면서 과학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어 지금까지 “영원한 법칙”이라고 믿고 있었던 자연과학이란 없다는 결론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자연의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은 반드시 인과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콘스탄(Kohnstam)의 특별 제시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적이 증명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대한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적은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뉴턴의 과학관이며 현대에 와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부른너의 전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이적과 의학과의 관계

(1) 신학과 의학과의 긴장 및 충돌

애굽의 파피루에 의하면 BC1900년에는 종교와 의학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나 충돌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랬던 것이 BC5세기경 회람에서 종교와 의학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회람의 의학의 아버지로 전해지는 히포크라테스(BC 460-377)는 모든 병을 초자연적 원인에서부터 분리시키려 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문둥병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 아니고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뇌의 병이라고 했다.

아무튼 초대 교부들은 의학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신앙 요법(Christian Science)의 창시자인 메리 B. 에더는 과학과 건강(Science and Health)이란 책에서 병이란 비실재의 것으로서 병을 좌의 결과로 진단하고 진리(Truth)에 의한 치료를 주장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이 약 없이 고칠 수 있는 의사로 보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의학을 연구 치료하는 주제의 상극적인(사실은 그렇지 않으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태도를 취했다. 다만 수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지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뼈속에는 타지도 없어지지 않는 뼈가 있어서 그것이 부활할 때 새롭게 결합되므로 수술해서는 안된다는 탈무트(Talmud)의 잘못된 해석 때문이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만 물보며 상처를 싸매어 줄 뿐이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었다. 아무튼 중세이후 의학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많이 수정되었던 게 사실이었다. 누가 의학의 공헌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의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또는 영혼)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신앙의 요법은 현실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정 응

〈고동부 교사·총신연구원〉

1. 하나님의 사역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1) 창 조

진화론자 다윈은 말하기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사상은 진화론을 반대한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다(창 1:26).

기독교사상은 “무(無)에서부터 유(有)의 창조”(creatio ex nihilo)를 믿는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현대 과학주의자들은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불가불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 진화론은 창조론에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적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사상은 “갈렘창조” “무에서부터 유의 창조” “7일 창조”를 믿고 있다.

(2) 섭 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또 우주내에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며 인도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서를 믿지 않는 현대인은 섭리의 교리도 안 믿는다.

옛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가마귀 새끼에게 먹줄 것을 주시는 도다. 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불드심이라”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는 좋은 귀절이다.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사상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사건들에 간섭하신다고 믿는다.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보호,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 필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육감적으로 느낄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어찌 나 쿨이겠는가?

2.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섭리하고 계시는가.

(1) 거 록

하나님의 성품을 구약 모세오경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데 바로 ‘거룩’이다. 그는 이방신들과 구별되는데 ‘율리의 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율리성을 강조하면서 ‘거룩’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성경을 보면 의복을 입는 방법이나 음식을 먹는 방법이나 제사지내는 방법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엿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전 3:16-17).

또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했다(살전 4:3). 오늘과 같이 율리가 타락하는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줄 알고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2) 사 랑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니고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가 없는 고아가 불쌍하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느끼는 우주의 수많은 고아가 얼마나 불쌍한가!

오늘도 굶주리고 헐벗고 악마에게 종노릇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부르시며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눅 15:11-32). 부모는 혹시 자식을 잊을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절정을 이룬다. 죄아들을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셔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게 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다면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신들과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요, 지금도 우주와 성도를 섭리하시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므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며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신다.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When a Friend We have in Jesus
(새 443; 개 168; 합 418)

죄짐맡은 우리 구주 어찌좋은 친군지
걱정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함나

인생 고백에서 시련 걱정 슬픔을 당할 때 낙심하여 주님을 멀리 떠나기 쉬운게 우리 인생이다. 조셉 스크리븐(Joseph Scriven)의 일생은 한마디로 고통과 슬픔으로 압도되었으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고귀한 삶을 산 분이다.

그는 1820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한 스크리븐은 이제 원대한 포부와 앞날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 있었다.

더욱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까지하여 정말 그는 나날이 행복에 찬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25세 때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약혼녀가 수염증(瘰癧)이라고 말았다. 오직 희망만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인생은 일순 캄캄한 암흑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였다. 그는 이 메울 질 없는 깊은 상처를 부둥켜 안고 암흑의 거리를 걸으며 방황하였다. 모친의 애틍은 눈물의 위로와 친구들의 권면도 그를 달랠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잊기 위해 사관학교에 들어갔으나 그러한 심신으로 훈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1845년 스크리븐은 모든 괴로움의 추억을 씻고자 애써 말리는 모친의 품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낯설은 항구도시 포트 호프(Port Hope).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그는 초탈한 자연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에 따라 그것을 실천하여 살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생활을 기도와 독경(讀經)으로 보내며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와 고아 과부등 불쌍한 이들을 물질로 배로는 몸으로 도와주면서 축복을 받았다. 이와 같은 미행(美行)은 온 포트 호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는 다시 두번째 약혼을 하였다. 그러나 복이 없는지 그녀마저 앓다 죽고 말았으므로 스크리븐은 다시 한번 생의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그는 평생 주님만 알고 혼자 살라는 팔자인줄로 생각하였지만 이것이야말로 후세의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는 특별한 은혜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괴로운 시련과 슬픔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토록 자애로우시던 어머니가 몹시 앓아 눕게 된 것이다. 자기도 처절한 슬픔에 잠겨있던 스크리븐은 “어머님이 당하신 큰 슬픔을 위로해 드리교자” 시를 쓰시자 했는데 그것이 이 “죄짐맡은 우리 구주”이다.

조셉 스크리븐은 세상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역경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만을 친구로 삼고 의지하면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외롭지만 고귀하게 일생을 살다 간 기도의 사람이었다.

1700년 2월 21일

고향행 열차

오 태 웅

유독 이번 구정에는 예년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행 열차를 탔다고 한다. 고속 터미널과 서울역 등에 이른 아침부터 표를 사려고 줄지어 선 모습을 자주 목도하였다. 고향이 무엇이기에 저토록 많은 인파가 「고향행 차표」를 사기 위해 저리도 일찍부터 부산들일까? 또 제일동포들이 구정 성묘차 모국을 방문하느라고 요즘 우리네 강산은 떠들썩하다. 조종연 간부였던 사람이 조국의 휴녕세에 주름진 노모의 눈물에 저도 흐느끼며 이제부터 「새 국민」되어 조국에 몸 바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인다. 이를 보는 국민의 눈에도 이슬이 맺힌다.

세상에 불쌍한 이들 중 하나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비록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에는 늘 푸른 고향이 자리하고 있어 괴로와도 괴로움을 모르고 슬퍼도 슬픔을 모르며 어머니의 가슴같이 따사로운 고향을 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언젠가는 돌아갈 그 고향이 있기에.

그런데 「고향행 차표」를 사러 줄지어 선 군산들을 바라볼때 마음 한 구석이 뻔뻔해져지는 것은 웬일일까? 저중에 과연 몇이나 육신의 고향 아닌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있을까? 제 영혼이 「구정」을 지내러 돌아갈 「본향행 차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육신의 고향을 가기 위해 일년 내내 서울에서 일했던 저들, 영혼의 고향을 가기 위해서는 지난 일년 세상에서 얼마나 일했을까?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 그러나 그 눈물 속에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을 찾은 감격을 얼마나 느낄?

아, 세상에 고향을 잃은 영혼들이 저리도 많구나! 고향도 아닌 곳을 고향으로 잘못 알고 표를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슬프고 아프다.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할 것이고 있다. 이제 돌아갈 고향 그 너머에 또 한 고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저들에게 고향을 알려주어야겠다.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실종이 나지 않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본향을 깨우쳐 주어야겠다. 고향을 잃은 저들에게 진정한 본향을 찾아주어 「새 국민」 삼아야겠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꼭 닥아올 「구정」에는 지금보다 더 즐겁고 기쁜 얼굴로 이미 사 둔 「고향행 차표」로 본향에 갈 수 있게 해주어야겠다. 고향의 부모가 반겨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맞아주시는 주님에게로.

이 「고향행 열차」는 아무리 태워도 만원되는 법이 없다. 올해는 「한사람 고향 열차 태우기 운동」을 꼭 실천하여 나도 저도 면류관을 받게 해야지. 열차 바퀴타는 것을 보시는 주님, 십자가의 고통도 잊으시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리라.

우리는 선교주일까지 저졌었다.

나훔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위로

윤영탁 전도사

〈본교회 전도사·충신 전임강사〉

주전 7세기에 유다백성이 앗수르의 압박에 시달리며 공포와 불안 속에 싸여 있을 때 나훔선지로부터 니스웨성의 멸망¹⁾과 유다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 때는 북방 이스라엘왕국이 앗수르에게 멸망(주전 722/1년) 당한 후였고 유다 주위에 있는 이방나라들도 차례로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유다의 영토는 물론 수도 예루살렘마저 포위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앗수르왕국의 영토가 이 때에 가장 확장되었던 것이다.

나 3:8-10의 말씀을 통해 애급 남방의 도시 “노아몬”(“메베스”라고도 함)이 아슬마니필 왕(주전 669-633년경)에 의해 함락될 일(주전 663년)이 이미 과거지사임을 알게 된다²⁾. 3:10에 “그 어린 아이들은 질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위졌으며”라고한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잔악했든가를 잘 알게 해 준다. 앗수르의 비문(碑文)에서도 타니스³⁾와 또 그와 함께 음모한 모든 부락들을 전멸하고 시체들을 나무기둥에 매어달고 가죽을 벗긴 후에 성벽을 덮개 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같은 앗수르의 잔악성을 잘 알고 있으며 또 북방 열 지파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바 있고 아직까지도 승승장구(乘勝長驅)해온 앗수르가 멸망함으로 유다가 다시 절기를 지키며 서원을 갚게 되리라 하는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훔선지의 의치는 태도는 확신에 차고 넘쳤다.

이제 우리는 왜 나훔선지가 그의 메시지의 초두에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언급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도 동시에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훔선지는 그의 확신의 근거를 여호와의 성품 즉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 두었다(나 1:2-3참조).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란 말씀은 니스웨와 유다 쌍방에게 적용된다. 일찌기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여로보암 2세 때 주전 733-753년)를 니스웨성에 보내시어 그들의 죄를 책당하셨을 때 그들은 회개함으로써 심판을 면했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생활은 일시적이어서 그후 끝끝내 악과 악탈을 일삼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백년(!)이 지나도록 괴롭혔다. 하나님의 공물을 감사할 줄 모르고 방종하며 망령(나 1:9,11, 왕하 18:35참조)되게 행하는 니스웨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

“여호와와는 투기하시며”(1:2)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손상이나 칭해를 받지 않으심을 뜻한다(칼빈) 나훔선지는 분명하게 예언한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라?”(1:6)“어

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3:7) 그는 니스웨성의 멸망을 엄격한 단어와 실감있는 문제로서 묘사하는 동시에 모두 3장으로 된 짧은 내용에서 제2장과 제3장 전체를 드러 다루고 있다. 니스웨성이 주전 612년 메베와 바벨론군에 의해 함락됨으로써 나훔선지의 “니스웨가 황무하였도다!”(3:7)라고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⁴⁾. 한편 유다백성에게는 원수의 압박이 끝났음(1:5)을 알리며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1:12) “야곱의 영광을 회복”⁵⁾(2:2)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진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왕래하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서원제를 갚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위로는 우리가 상용하는 평범한 위로는 아님에 틀림없다⁶⁾.

오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심을 나훔선지는 니스웨와는 대조적으로 유다에게 말해준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삼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이시느니라”(1:7) 여기 “선하시며”란 표현이 원문에는 문장의 초두에 있음으로 강조를 나타낸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자. 좁은 의미로서는 어느 신학자의 말과 같이 슬픔이 계속되는 가운데 위로한다는 것이 아니고 슬픔이 끝나는 성격의 위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음도 사 40:1-51:3, 61:2-3(본문 참조) 등의 성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분명히 나훔서의 위로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우리 영혼에게 참된 화평과 만족을 주며, 구체적이며 적극적이어서 변화를 가져오며 또한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다. 여기서 간파해서는 안될 한가지는 이 위로는 성경말씀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사 40:2에 “말하며” “외쳐 고하라”하셨고 롬 15:4에는 “성경의 안위”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훔선지를 통해 더 유다백성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셨다⁷⁾. 이 위로의 말씀의 궁극적 성취를 말하자면 나훔선지가 1:15상반절을 메시야적 구원을 가리키는 사 52:7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아 이 성취가 미래에 있을 것을 암시했다고 생각된다. 흥미있게도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야를 메나헴 즉 위안자라고 칭했든 것이다. 우리는 나훔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바로 이해하고 주시는 참된 위로를 체험한 성도답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 12페이지트〉



한국교회와 선교

이 연 호 전도사

<고흥부지도>

I. 서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1885년 4월 5일 한국에 선교 선교사가 첫발을 디움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진 후 일본 제국주의의 신사참배 강요 철폐와 6·25때 공산당들의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앙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부흥을 가져온 한국교회는 세계에 기독교 한국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세계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는 음성을 듣고 있다.

II. 본론

1. 성서적인 선교관

세계선교관 다만 전 세계를 기독교의 영향 안에 넣는 의미에서의 「기독교화 운동」(Christianizing Movement)은 아니다. 세계선교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전세계 인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냄을 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고 하였다. 사도(Apostolós)란 원어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것은 영광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몇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지상명령이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바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

이 놀라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새 생명을 탄생시키신다.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님에 의지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의 초대 선교사로 파송 세계선교의 기틀을 세우게 되었다. 이 주님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2. 선교의 동기

선교의 동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은혜의 감사에서 그 원천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파커(J.I. Parker)도 선교의 동기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여 그의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며 지옥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이 지상명령을 거절할 수 없으니 이 명령은 강력하고도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 전파(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것이다.

3. 선교의 목적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교의 목적은 「구속」이다. 즉 문신자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여 회개시키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 믿게 함이다. 이에 대하여 스피어(R.E. Spear)교수는 말하기를 「외지선교의 목적은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요 구원이기 때문이다.(요 17:3).

4. 선교사의 자격

이것은 선교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될뿐 아니라 교회성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성경을 잘 알고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둘째, 개인적인 자격으로 도덕적 용기가 있는 자.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문벌력과 열심이 있으며 지도력이 있는 자. 셋째, 외국인인 아니라 파선교지의 백성으로서 일할 수 있는 건장한 자. 넷째, 30세 전후의 청년으로서 새로운 언어에 숙달할 수 있는 자. 다섯째, 가족관계가 간단하여 선교사업에 지장이 없는 자(선교비를 최소한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5. 선교의 무기

(1) 성령이다. 초대교회는 오순절을 계기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 큰 부흥이 있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효과적으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선교사 자신은 물론 이 사업을 후원하는 배후의 교회 또한 성령 받기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한다.

(2) 재정이다. 선교비를 보낸다는 것은 선교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이므로 전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

(12 페이지로)

(10 페이지에서 계속)

- 1) 니느웨성은 앗수르의 중요한 성중의 하나로 주전 612년에 함락됐다. 이후에(주전 609년) 곧 앗수르왕국은 멸망한 것이다. 앗수르의 수도 아술은 이미 주전 614년에 함락됐다.
- 2) 그러므로 나훔선지의 활동기간이 주전 663-613년(니느웨성 함락은 612년) 사이였음을 알게 된다.
- 3) 애굽 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라암세스」 또는 「소안」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도시는 메페소보다 앞서 아술라니 팔왕의 애굽 원정때 함락됐다.
- 4) 니느웨성은 약 2,500년 동안 흥속에 매장되었다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야 비로소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기 시작했다.
- 5)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상실했던 선민으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회복하게 된다는 뜻
- 6) 물론 성경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위로라든지 또 여러모양의 위로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
- 7) 위로의 말씀을 전할 중의 이름도 위로(나훔)라고 한 것은 뜻깊은 일이다.

(11 페이지에서)

(3) 순수한 복음이다.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한 이유는 순수한 복음이 아닌 그의 해박한 철학적 지식에 의거 이성에 호소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려 한 때문이었다. 한국의 초대교회가 선교에 성공한 것은 초대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만을 전하였던 데에 기인한다. 순수한 복음이 들어갈 때 전통적인 타습은 깨어지고 기독교적인 새로운 전통이 수립된다.

III. 결 론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일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이다. 이 명령에 순종한 초대교회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가져왔다. 이처럼 선교를 한다는 것은 곧 교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두한한 발전과 세계를 향한 지상과업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운동과 세계를 향한 선교사업이다.

■ 선교회원의 임무 ■

- ① 하루 한번 이상 현지 선교사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 ② 현지선교를 지원하는 본선교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 ③ 선교사업을 위해 작성한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게 되지 못한다는 게 슬겁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격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
인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 추천하고 싶은 책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크리스찬와이즈/지음 백함출판사 발행
 정 영 선/옮김 4.6판 162면 값 500원

감람산에서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들은 물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께서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대답하셨다.

「자기의 권한」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어떤 빛깔인가? 우리의 생각과는 어떤 차원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풍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신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많고, 자신이 불신자이기 때문

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단절해버리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많다.

이책의 저자 와이즈씨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주제를 성서적인 기반 위에서 차분하게 친절히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 주고 있다.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소박하면서도 중대한 문제를 자극시켜 놓은 다음, 하나 하나 해답을 풀어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섭리의 역사를 통하여, 물려의 방법을 보고, 자신의 소명을 통하여 주제의 해답에 접근시키는 참으로 진실한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보잘것 없는 한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큰 계획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원초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완전하신 그의 뜻을 알고 따르는 방향을 불기둥처럼 보여주는 책이다.

박종구 선생

(동화작가·한국기독교출판협의회 사무국장)

◇ 믿음의 어머니 ◇

고 최경한 권사님을 생각하며

지난 1월 25일 새벽, 갑자기 최경한 권사님께서 이 세상을 이별하시고 우리의 길을 떠나 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속아오르는 슬픔에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생전의 그 청아하시고 매사에 바르시던 권사님의 인자한 모습을 두번 다시 뵈울 수 없게 되었군요. 이제 우리교회는 뜻과 경성을 다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충성하시던 주의 종을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나누려는 이같은 최경한 권사님은 지금부터 80년전인 1896년 8월 19일 함경북도 갑산에서 최문선씨의 2녀로 이 세상에 나시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자라, 20세가 되시던 1915년에 유기연씨의 9남매중 둘째 며느리로 유중환(원집자 주: 유한양행(柳韓洋行) 설립자 유일환씨의 동생)씨와 결혼하시어 단란한 가정을 이루셨으나, 결혼하신 지 불과 3년만인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부군을 사별하시게 되었으며, 또한 유일한 혈육이었던 따님 한분마저도 생후 7개월만에 잃으셨습니다.

이처럼 한 여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가슴이 메이고, 소망이 아주 좁아진 듯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하시고도, 언제나까지나 근심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됨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도리어 15여명의 어린 시동생들과 조카들을 키우시며, 부군과 따님에게 못다하신 사랑을 쏟으시려는 듯, 경성을 다해 이들을 돌보셨으며 어떻게 하면 좀더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을까 하고 늘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정에서는 한 여성으로서 모자람이 없으셨고 몸된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할 바를 힘써 지키시던 권사님은, 주님의 복음전파를 위해 일선에 나서려는 큰 뜻을 품으시고, 드디어는 1927년에 원산 루시성경학교에서 수학하셨습니다. 그후 해방 이듬해인 1946년부터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나기까지, 소사 중앙교회에서 박중정 목사님과 같이 전도사로 시무하셨고 난리로 인해 세상이 몹시도 어지러웠던 제주도 피난시절에도 전도하시는 일을 계속하시어, 낙심과 불안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던 수많은 난민들이 하늘의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었습니다.



◇ 고 최경한 권사

1951년에는 우리 중현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부산 동원교회와 1953년 상경하시어 사는 오늘날의 중현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셨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현교회 권사로서 또한 한때는 여전도회 회장으로까지 힘껏 교회활동을 하시며 충성을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경한 권사님은 홀몸이면서도 경우가 많아 남에게 의지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움 받기를 거절하시고 항상 스스로의 독립된 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던 청렴결백한 성품과, 그릇된 것을 보시면 그대로 지나치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정하도록 말씀하시므로 교회의 젊은이들에게는 「호랑이 할머니」라고 불리우려 만큼 굳은 성품을 지니신 분이었지만, 이와는 또 달리 대조적으로 불쌍한 사람을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시던 따뜻한 인간성을 지니신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시고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후손들에게 지켜오시던 최경한 권사님을 오늘 떠나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좀더 우리의 길에 오매 살아계신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후손들을 위해 더 큰 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지만, 이제는 이러한 부탁도 더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러한 부탁을 드리기 이전에, 살아 생전에 따뜻한 손을 한번이라도 더 잡아보지 못한 것이 아쉽고, 교회의 어른으로, 집안의 어른으로 섭섭함과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생전에 좀더 잘 돌보아 드리지 못함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까지나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만 있는 것을, 최경한 권사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이 고분스롭고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80명생을 그리시던 주님과 여러 생도들을 만나 뵈우고 기뻐하시며, 구속한 주님의 무한한 은혜의 찬송을 힘있게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분은 이제 가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실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다.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 마르기 전에 우리는 다시한번 결심합니다. 권사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바르고 깨끗하게 살다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와 잠시 떨어져 있을 최경한 권사님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만나 뵈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참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위 글은 지난 1월 27일 고 최경한 권사님 장례식 때 여전도회 김상권 권사가 낭독한 조사(弔辭)입니다.

구역 공과

◇ 3월 공과 ◇

제 5 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요 20장, 고전 15장

찬송/새 184(합 145)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터가 된다. 그러기에 4복음서는 예의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도 고전 15:14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다.

1. 부활의 의미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증명했다(롬 1:4).

②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롬 5:10)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고전 15:17).

③ 그 결과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다.

④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그가 살아계심을 보여 줄뿐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한 것(즉 그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을 증명하였으며 또 이를 믿을 수 있게 했다(요 14:19).

2. 승천하신 그리스도

눅 24:50-51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시다가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였다. ①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우신 것을 보여주며, ② 이후부터는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게 될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중보적 역할이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벗어난 영원한 것임을 보여준다(참고, 히 7:25).

3. 다시오실 예수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참고 행 1:10-11).

제 6 장 성령론

성경/요 14:15-27, 행 2:1-41

찬송/새 200(합 160)

"성령을 믿사오며"

요 14:16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다른"(allon)은 동질의 뜻으로 성령님 이외의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그러나 동질의 제3위인 성령님을 가리킨 말이다. 그러면 "보혜사"란 어떤 분인가? 보혜사는 원문에 parákletos(pará 가까이 + kletos=부름받은자)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가까이 또는 함께 있으면서 성도들을 도와주며 지켜주시는 이를 말한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을 하나의 힘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성령님은 참 인격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은 성령님에게는 지와 정 그리고 의가 있다는 뜻이다(참고, 고전 2:10-11; 엡 4:30; 행 16:7).

2. 성령님은 삼위중 세번째 위(位)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시다. 즉 그는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않았으며 누가 그를 낳은 것도 아니고 다만 나오신 유출된 분이시다.

3.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은 여러가지 사역을 하신다.

① 어두운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시어(시 119:18; 고전 2:15-16, 요 14:17) 죄를 발견케 한다.

②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은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요 3:5, 시 51:10).

③ 성도들을 가르치며(요 16:12-15), 인도한다(롬 8:14).

④ 믿는 자들을 성화시키신다(살후 2:13, 빌전 1:2).

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도우신다(롬 8:26-27).

⑥ 성령을 충만케 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한다(행 1:8).

※ 구역공과는 계속 실어드립니다.

구역업무 처리 요령

백 성 통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실제적인 구역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구역장의 업무는 교회 부흥에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막중하다. 구역장의 기능을 단순한 사무적인 일에만 국한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올해의 권찰업무요강을 볼 때 계획성 없이는 그 어느것도 할 수 없으며 서로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계획성 있는 업무처리란 즉흥적인 계획이나 막연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업무처리 요령의 필수요건으로서 다음 몇가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① 필요성이 있는가?—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② 목표는 뚜렷한가?—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일의 진척사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한다.

③ 방법과 절차가 결정되었는가?

④ 조직이 필요한가?—필요하다면 가급적 일을 분담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필요한 인적자원 동원은 가능한가?

⑥ 필요한 물적자원과 장소 및 시설 등의 동원은 가능한가?

⑦ 필요한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가?

⑧ 사후에 지속적인 관리계획은 세워졌는가?

그러나 이상의 요령에 의해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정작 교인들의 호응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관계된 사람과 뜻을 모아 함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충분히 알려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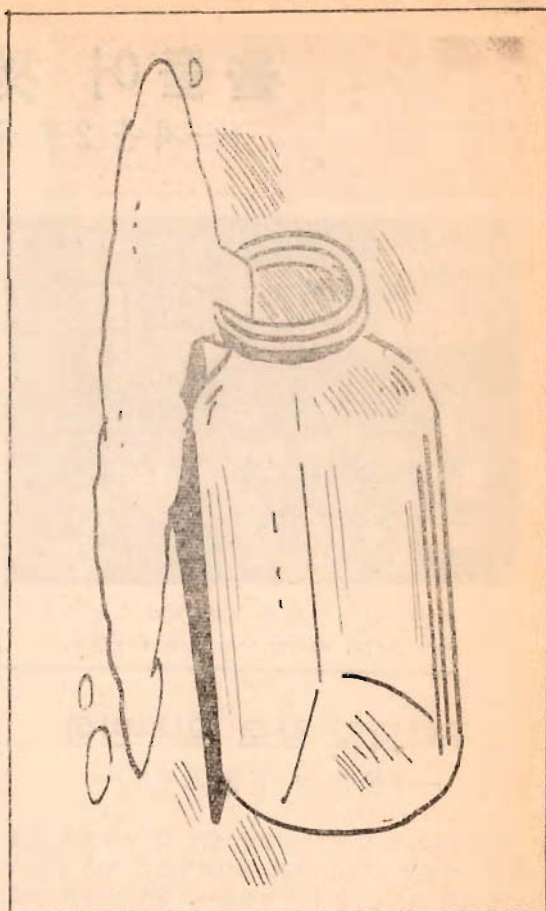
또 구역일이라고 해서 구역장이나 구역원들만 알고 있어도 안된다. 구역의 모든 일은 교회의 일이므로, 어떤 일이든 공공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은 당회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당회장이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구역담당 교역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이런 뜻에서 계획된 일을 실천하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과 일을 진행중에 중간보고 하는 일과 일을 끝내고 결과보고 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모든 일을 끝낸 후에는 반드시 감사를 받고 평가서를 내는 일을 꼭 시행하여 미흡하였던 점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또 다음 일에 보다 좋은 계획을 구상할 수 있는 자로 삼도록 해야 한다.

◎ 바로 잡습니다.

※ 1월호 14페이지 우단 아래에서 20번째줄을—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하고 ①전도하며—로 바로잡습니다

※ 1월호 14페이지 우단 아래에서 2째줄을—3월 구역공과—로 바로 잡습니다.



■이탈의 캠페인 교회의 모든물자를 아껴쓰시다

□ 누가 우유를 쏟았을까요?

이제는 다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만 주의를 하였던다면 이제껏 헛되게 쏟아버리는 것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 우리가 교회에서 늘 쓰고 있는 소모품이나 시설물은 어떤가요?

이 물건을 우유처럼 헛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한사람 한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하고 모든 물건을 미물처럼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것은 낭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마련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에 대한 사용 또는 관리의 책임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물건을 하나 하나에 대해 감사하며 절약하고 또 조심스럽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올들어 첫 특별집회

—지난 2월 8일 오후 3시—



◇ 지난해 11월 이후 만 2개월만에 2월 8일 다시 모이기 시작한 주일 오후 특별집회.

구역담당 장로 일부변동

—구역장 및 권찰 보선도—

구역권찰회는 일부 구역담당 장로 및 구역장을 변경하고 구역권찰 3명도 추가 보선하였는데 지난 1월 29일 당회의 허락을 받아 확정하였다. 변동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역담당 장로 변동

① 중곡구역 담당 윤희한 장로를 윤용규장로로 변동

◇ 구역장 변동

① 삼성구역 구역장 홍익훈을 면하고 백도선 권사로 임명

② 창동구역 구역장 이기운을 면하고 송형섭 권사로 임명

◇ 권찰보선

① 잠실구역 권찰에 김영자를 임명

② 청량리 구역 권찰에 이제순 집사를 임명

③ 태능구역 권찰에 정임숙을 임명

올해 보조교회 선정

—제주 서남교회등 모두 7개교회—

우리교회 전도활동을 전체적으로 통괄하여 연구·조정·지휘하는 기관으로 지난 1월 발족된 「전도위원회」서는 우리 교회가 1976년 한해동안 매월 보조할 교회들을 선정하여 당회의 가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남교회(제주, 전희문 장로 시무) ② 통일촌교회(경기도 파주군) ③ 화정교회(경남 의령) ④ 행당 제일교회(시내 행당동) ⑤ 남부교회(시내 신림동) ⑥ 중앙교회(충남 대천) ⑦ 군연

1975년 3월 30일 부활절을 기해 성령복합의 도화선으로 삼교자 모이기 시작하였던 주일 오후 특별집회가 지난 주일(2월 8일)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령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한 여름 가뭄 때의 단비처럼 감탄 심령을 축축히 적셔줄 이 주일 오후 특별집회가 2월 한달 동안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리라고 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올들어 첫번째로 특별집회의 말씀은 에베소 5:15-29의 성경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김창인 목사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한편 당회는 이 특별집회를 위하여 7명으로 구성된 「협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협의위원회의 위원장/송준일 장로, 위원/정상우 목사, 정기성 목사, 신성중 목사, 최석주 장로, 윤용규 장로, 정홍식 집사.

교회(육군 제8889부대)

또한 「전도위원회」는 이제까지 보조해오던 낙원교회 보조를 사정에 의해 중단하기로 하였다. 교회 「전도위원회」가 보조하기로 신청한 위의 7개교회 외에도 현재 「남전도회」가 금연교회(경기도 가평), 장남교회(경기도 가평)를 「여전도회」가 천치교회(경기도 안양), 성광교회(시내 구로동), 성현교회(시내 개봉동)를 돕고 있다.

교회 수양관 건립

—권사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권사회」발족과 함께 교회 수양관 건립을 주요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로 힘써온 「권사회」에서는 이 사업의 결실을 보기 위해 올해는 온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 김영화 권사(회장)는 수양관 건축 예정지인 충현동산(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현지 답사를 2월중 실시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현지 답사후 건물의 구조·크기·설계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리라고 하는데 교회 수양관 건립문제는 교회 성전건축문제와 함께 우리교회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망 중의 하나이다.

제 1회 기업인 수련회

지난 9일(월) 오후 7시부터 기업인을 위한 수련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수련회는 우리교회 교인 중 대소를 막론하고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나 앞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뜻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첫모임인 이날 약 130명이 참석하였고 강사로는 홍종만 목사, 김인득 장로 두분이 초청되었다.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 성료

—대학부는 동기 수양회 열어—

새신자·유치·유년·초등부의 제13회 겨울어린이 성경학교가 지난 1월 19일을 시작으로 하여 1월 29일까지 열렸다.

「제림과 심판」을 주제로 하고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리라/제 22:7」는 말씀을 표어로 하여 실시된 이번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는 학생 출석수에 있어서 작년 평균 697명에 비해 올해 평균 583명으로 약간 저조한 편이었다.

여기에는 작년보다 분리하여 운영되는 영아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안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년부와 초등부를 분리하여 개교일정의 시차를 들으로써 장소가 협소하여 교육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던 과거와는 달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장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교육적 효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한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와같은 시차제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의하고 있다.

한편 대학부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새벽 이슬같은 청년」이라는 주제로 제 5회 동기 양회를 열었다. 평균 85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에는 주강사인 정상우 목사 외에 특강 강사로 외부에서 4명을 초청하여 서로 상반된 대조적인 강의로 대학생 자신들에게 스스로의 비판력과 분별력을 키우려고 하였다는 점이 이번 수양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었다.

수원 농아교회 집회전도

—청년부 2월 4~6일—

청년부는 지도 정관일 목사 인도로 지난 2월 4~6일(3일간) 밤낮으로 수원시 세류 1동 85에 자리잡은 수원 농아교회(이상희 전도사 시무)에서 「새 생명의 발견」이란 주제 아래 부흥회를 가졌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 성도 30여명은 통역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였다. 그 집회에는 청년부 임원들을 비롯 많은 회원들이 교대로 참가하여 후원함으로써 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연호 전도사 전임교역자로

—대학부 부지도에는 이준교 집사—

우리교회에 부임한 이래 줄곧 중등부 지도로 수고해 오던 이연호 전도사(총신 졸업)가 1976년 1월 1일부터 본교회 전임교역자가 되면서 고등부 지도교역자의 임명을 맡았다.

한편 대학부는 이준교 집사(총신연구원 재학, 고교교사)를 부지도로 청원하여 지난 1월 29일 당회의 허락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교회는 2월 15일 현재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부목사 8명, 남전도사 2명, 여전도사 6명 등 모두 17명의 전임 교역자와 2명의 여자 공로 전도사 및 7명(남 5명, 여 2명)의 주일학교 담당교역자등 총 26명에 이르고 있다.

<1976년 우리교회 성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토막소식

- * 새신자부는 오는 3월 28일 교사들의 자결향상을 위해 연구수업을 실시한다.
- * 영아부는 오는 3월 25일(목) 주기도문 외우기를 실시한다.
- * 유치부는 사도신경 외우기를 오는 3월 7일 오후에 연다.
- * 유년부는 어린이 심방보교대회를 오는 3월 7일 전체 및 과별 대표별도 실시한다.
- * 초등부는 오는 3월 14일 심방보교대회를 연다.
- * 중등부는 오는 3월 14일 오후에 남산공원으로 노방전도 나간다.
- * 중등부는 오는 3월 28일 부활절 기념 촛불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 * 고등부는 면려회 신앙부 주최로 오는 3월 7일 교사초청 라담회를 연다.
- * 고등부는 부활주일 기념 촛불예배를 3월 20일 드리게 된다.
- * 대학부는 면려회 자체에서 오는 3월 7일 대학부 학생 전체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 대학부는 오는 3월 14일 병원전도를 실시하며 8일부터 13일까지는 대심방을 실시한다.
- * 대학부는 오는 3월 27일 부활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 * 청년부는 오는 3월 14일 중부시립병원으로 일제전도를 나간다.
- * 청년부는 오는 3월 1일 회원들을 위한 산상특별기도회를 열며 5일에는 철야기도회도 연다.
- * 청년부는 오는 3월 20일(토) 교회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 * 노년부는 3월중 반별 찬송경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 교육위원회의 홍익훈 집사는 교육위원직을 사임하였다.
- * 남전도회는 오는 3월 14일 찬송가 퀴즈대회(가사의우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 * 교회에서는 강명철(1951년생)군을 사환으로 채용(1976.2.1부)하였다.

■ 교회의 모든 물자를

아껴쓰시다 ■

기자석

○……교회 마당에 밤하늘의 듯별과 같이 수없이 많이 깔려 있는게 있다. 크고 작은 까만 점…… 헤어버리려만 얼마나 많은 수공이 들까? 버리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심지어 예배당 안에까지 까만 점이 시야에 들어오니 예수님이 바닥은 못 보시는 줄,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해서일까 스스로 자증해야 할 문제이다.

○……불냄새가 난다. 희망의 바람이 스치는 것 같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크리스찬의 조용한 움직임이 보인다. 이곳 저곳에서.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에 대해 깊은 감사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번 수원농악교회 부흥회에서 이루어졌다. 주님, 글을 쓰고 생각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혜)

○……교회당이 비좁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교인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당의 신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더욱 문제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안고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세다. 피차간의 양보·협조로 당분간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2부와 3부예배가 바뀌는 시간에 별관 입구의 현장을 사진으로 한장 찍는다면…… 과연 그 사진을 보고 누가 과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

○……예배시간 중 기도시간에는 입장을 안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좋은 전통은 대예배시간은 물론 각부 주일학교 예배시간에도 지켜지고 있다. 현대 이 좋은 전통이 무시되는 곳이 있으니, 이곳은 우리교회가 아니란 말인가. 별관 3층의 예배실은 종종 이 전통이 무시되어 기도시간 중에도 출입이 자유로워…… 이것은 어느 누구의 통제로 되는 일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 각자가 깨달아 고치도록 하자. (영)

* 사령(辭令) *

명, 「월간 충현」 기자 유 화 자

1976년 2월 1일부

◆ 알립니다 ◆

「월간 충현」 편집실에서는 금년부터 자료실을 운영합니다. 이 자료실은 우리 교회내의 모든 사진·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실의 운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교회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되며 단기적으로는 우리교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각부처에 아래의 몇가지 사항을 부탁하며 알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각 부처에서 매주 발행되고 있는 유인물 및 간행물(주보포함)은 발행된 주일 오전 중으로 각 2부씩을 「월간 충현」 편집실로 집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재 및 촬영을 필요로 하는 행사 및 모임은 1주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의 실시는 매달 발행되는 「월간 충현」 뉴우스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각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월간 충현」 편집위원장 위 영 환

편집하고 나서

*……금년들어 두번째 캠페인은 「물자결약 캠페인」이다. 마을 정돈하여 주위를 살펴보자. 불필요한 낭비가 얼마나 많은가를, 전기 한등, 종이 한장에서 예산의 배경, 집행에까지 과연 적절적소에 사용할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월간 충현」은 3월까지 이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캠페인이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모두가 생각하며 행동해 보자.

*……금년들어 「월간 충현」지는 편집방향울 조금 바꾸었다. 지난해의 뉴우스 중심에서 신앙·교양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하여 명실공히 월간 신앙·교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것이다. 따라서 금년 들어 새로운 계획으로 시도되는 몇가지의 연재물들이 있다. 이것들은 아마 「월간 충현」의에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귀한 글들이라 생각된다. 잘 익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일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

*……연초(年初)의 수련회, 각부 주교의 겨울행사도 끝나고 특별집회도 다시 열렸다. 올해에 우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만 남았다. (형)

【표지 설명】

입춘·우수도 지난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는 봄과 함께 우리교회도 새로운 활기를 더해간다. 연말년시의 쌓이는 일로 잠시 중단되었던 특별집회가 지난 2월 8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지난해 부활절을 계기로 열렸던 특별집회도 어느덧 1년으로 접어든다. 올해엔 성령폭발의 운동이 터져 전국에 퍼지는 조용한 번혁이 대동되는 특별집회가 되게 하소서, 염원하는 마음으로 표지를 꾸민다.

월간 「충현」 2월호 · 통권제 26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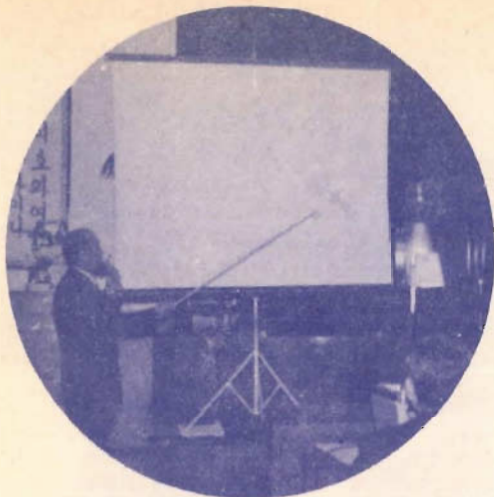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2월 15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1월 4일 공동처리회에서 지난 해의 결산과 '1976년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재정위원장 김기정 장로가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구·실전·개선하는 주일학교」를 표방하는 의욕적인 교육위원회의 회의 모습. 교육위원들의 진지한 토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란 주제로 모인 겨울성경학교에는 예년에 비해 추운 날씨지만 열심히 나와 공부하였다. 사진은 유치부 겨울학교의 어느시간.



◇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맡은 성가대 대원들의 수가 부쩍 늘고 그 활약이 자못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제일성가대의 찬양시간에.



◇ 「너희는 가라 아니면 보내라!」 1월 25일 제 2회 선교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선교비 작정을 하고 있다. 「땀끝까지회」 회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 1월 26일부터 4일간 열린 대학부 동기수망회에서의 패널토의 장면. 그 기간에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란 주제로 정상우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셨다.



소경 바디메오

누구를 기다리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어둠이 드리운 여리고 성문가에
우리들이 흘러온다, 그 속삭임 소리 ——
“나사렛의 예수다.”
피부를 찌르는 듯 크낙한 외침소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 수를 더하고
제각기 꾸짖는다. “조용히, 바디메오.”
그러나 그 소리에 아랑곳없이,
거지의 외침소리 날카롭게 울린다.
이윽고 사람들, “안심하고 일어서게,
예수께서 그대를 부르신다.” 전한다.

우리들 고요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소경은 대답한다. “보는 것입니다.
주여, 감긴 내 눈을 뜨게 해 주오.”
예수는 대답한다. “안심하고 가라,
그대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니라.”

눈이 있으면서도 어둠이 비침 속에 있어,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여,
이 힘찬 세 마디 말 씀을 기억하여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심하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가라, 그대의 믿음이 너를 구원 했니라.”

* 헨리 롱펠로우의 시, 「기독교명시선」 중에서.

* 헨리 롱펠로우

(Henry Wadsworth Longfellow, 1807-82)

워트먼과 더불어 미국 최대의 시인이며 학자. 1836년
부터 54년까지 하버드대학 교수 역임. 수많은 작품 가
운데 서사시 “이반젤린”(1847)과 “라이워더”(1855)
등이 유명. 그의 시의 장점과 특징은 심각한 인생체험
의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쉬운 필치로 모두에게 교훈적
이며 도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는 리듬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